

# 李白의 <懷古>篇의 내용과 구조 특색 고찰\*

최우석\*\*

## <목 차>

1. 머리말
2. <회고>편의 내용 분석
3. <회고>편의 구조 특색
  - 3.1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逆場의 구조
  - 3.2 역사의 滄桑感에서 오는 消滅의 구조
  - 3.3 시간차의 제거에서 오는 不在의 구조
4. 맺음말

## 1. 머리말

이른바 '懷古詩'라 함은 주로 역사를 제재로 하여 역사 속의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 등을 돌이켜보며 드는 감회를 술회하거나, 역사의 득실을 따져 의론을 펼치거나 또는 역사를 빌려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시의 한 갈래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詠史詩'와는 매우 흡사하고 그 경계 역시 모호한 경우가 많다. 고대에는 유적지에서 노래하는 경우 '懷古詩'라 하고, 역사서를 읽고 인물을 노래하는 경우 '詠史詩'라고 했으나, 이러한 구분은 점차 섞여서, 역대로 회고시를 영사시의 범주로 포함하거나 혹은 영사시를 회고시의 범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논쟁은 그치지 않아 크게

www.kci.go.kr

\* 이 논문은 국립안동대학교 기본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tawoo@anu.ac.kr).

회고시와 영사시를 분명히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과<sup>1)</sup> 반대로 이 둘의 경계를 무너뜨려 하나의 '詠史懷古詩'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sup>2)</sup> 함께 공존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백의 시집 가운데 현존하는 최초의 완전한 宋蜀本, 그리고 이후 이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蕭士贊과 王琦 등이 편집한 대부분의 詩全集에는 <詠史>의 분류는 없는 대신 <懷古>의 분류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백의 <회고>편에는 순수하게 역사만을 제재로 한 <영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唐代의 회고시 창작 경향과 깊은 관련을 맺는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영사시는 회고시의 창작 보다 훨씬 앞서서 출현했다. 즉 영사시는 일찍이 漢代 班固(32~92)의 <詠史詩>에서 비롯되었던 반면, 회고시의 창작은 陶淵明(365~427)의 <癸卯歲始春懷古田舍二首>에서 맨 처음으로 보인다. 게다가 蕭統(501~531)의 《文選》卷21에서는 전문적으로 <영사> 항목을 배치하고 그 안에 총 21수의 시를 수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初唐에 이르러 <회고>의 창작은 본격화 되었고, 李百藥(564~648)의 <郢城懷古>를 시작으로 劉希夷(651~약679)의 <洛川懷古>, <巫山懷古>, 陳子昂(661~702)의 <白帝城懷古>, <峴山懷古> 등의 작품이 속출하면서 회고시는 중국의 詩壇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sup>3)</sup> 뿐만 아니라 唐代의 《文苑英華》와 《集千家注分類杜工部詩》등에는 <영사>의 분류는 보이지 않는 대신 <회고>의 분류가 <영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백의 <회고>편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갈래 개념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

- 1) 대표적인 것으로 劉學鐸는 <李商隱的詠史詩的主要特徵及其對古代詠史詩的發展>에서 “盡管它們都以‘古’爲吟詠對象，在發展過程時有交叉，甚至有題爲‘懷古’實系詠史的情形，但畢竟是兩類詩。一般的說，懷古詩多因景生情，撫跡寄慨，所抒者多爲今昔盛衰，人事滄桑之慨。而詠史詩多因事興感，撫事寄慨，所寓者多爲曆史人事的見解態度或曆史鑒戒。”(《文學遺產》, 1993年 第1期)라 했고, 施蟄存은 “詠史詩是有感於某一歷史事實，懷古詩是有感於某一歷史遺跡。”(《唐詩百話》, 上海古籍出版社, 1987年, 第239쪽)라고 언급한 바 있다.
- 2) 예를 들어 沈祖棻은 “古典詩歌當中所謂覽古或懷古的作品，就其題目而論，雖屬地理範圍，但既是古跡，就必然具有歷史意義，所以它們在實質上是一種詠史詩。”(《人七絕淺釋》，河北教育出版社, 2000年 163~164쪽)라고 주장했고, 雷恩海은 <詠史詩淵源的探討暨詠史詩內涵之界定>에서 “懷古詩派生於詠史詩，是詠史詩的變體，應該包涵在詠史詩的大範疇之內。”(《貴州社會科學》，1996年, 第4期, 73쪽)라고 주장 한 바 있다.
- 3) 이에 관해서는 유혜영의 <유적지에서서의 감회 - 初唐懷古詩의 形成過程과 類型研究> (《中國學報》 제54집 2006, 81-101쪽) 참조.

로 볼 수 있다.

이백의 <회고>편에는 총 26題 37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sup>4)</sup> 본고는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삼아, 먼저 그 내용을 제재별로 분석한 뒤 시가 속에 내재된 미학적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백의 시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회고시의 발전에서 이백 회고시만의 특색을 이해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2. <회고>편의 내용 분석

먼저 이백 <회고>편의 창작 시기를 보면, 그 창작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시작 가운데 가장 먼저 창작 된 것은 아마도 이백의 나이 24세(開元13년, 725)에 지어진 <月夜金陵懷古>, <宿巫山下>이며, 가장 늦은 것은 그의 나이 57세(乾元元年, 758)에 지어진 <望鸚鵡洲悲禰衡>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이백은 젊은 시절부터 만년까지 줄곧 회고시를 창작 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시절부터 전국을 漫遊를 하는 가운데 역사의 유적지나 유서 깊은 풍광을 접하게 되면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감회나 뜻을 시로 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듯하다. 실제로 이백의 <회고>편의 내용을 보면, 역사의 유적지나 인문 유적지를 유람하는 가운데 역사나 역사적 인물을 회고하며 지은 것이, 전체 37수 가운데 <月夜金陵懷古>, <望鸚鵡洲悲禰衡>, <過彭蠡湖> 등 무려 32수(86%)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창작 장소와 시기를 추측하기 힘든 나머지 <西施>, <王右軍>, <上元夫人>, <蘇武>, <商山四皓> 등의 5편은 역사의 일을 그대로 돌려켜보며 지은 것으로,

4) 본고에서 분석한 이백의 시는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을 저본으로 삼았음. 이백의 영사시를 포함한 회고시는 宋蜀本에서 分門한 <회고>편 이외에도 더 있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초기 <회고>편의 편집 의도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을 <회고>편에 한정하였다.

‘詠史詩’의 성격에 매우 근접한다. 즉 이백의 <회고>편은 그 창작 배경에 따라 크게 ‘영사’의 수법으로 회고한 것과 유적지를 유람하며 회고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어쨌든 이백은 역사의 현장을 방문 하거나 혹은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이를 시로 읊길 때는 이른바 ‘今昔之感’를 노래하거나, 역사의 인물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역사의 일을 통해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는 등, 사뭇 다양한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백 <회고>편의 내용을 내용별로 크게 분류해 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내용	今昔之感	옛 인물 그리움	역사 속 인물 묘사	역사를 통한 言志	풍경묘사	기타	소계
수량	10首	9首	9首	3首	4首	2首	37首

위의 도표를 통해 이백의 <회고>편에는 지나간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 하는 가운데 인간사의 덧없음과 일종의 無常感을 느끼는 이른바 ‘今昔之感’을 토로하는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初唐 李百藥(564~647)의 <郢城懷古>, 劉希夷(약652~680)의 <洛川懷古> 등 이래로 당대 회고시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어 주었다. 이백의 <蘇臺覽古>, <越中覽古>, <過四皓墓>, <月夜金陵懷古>, <金陵三首>, <金陵白楊十字巷>, <姑熟十詠·桓公井> 등의 10수가 이에 속한다. 이 가운데 <금릉 백양로의 십자항(金陵白楊十字巷)>을 살펴보자.

白楊十字巷	백양로의 십자항
北夾湖溝道	북으로는 수로 호구를 끼고 있었지.
不見吳時人	오나라 때 사람은 보이지 않고
空生唐年草	부질없이 당나라 풀만 자라네.
天地有反覆	천지가 여러 번 뒤집어지더니

宮城盡傾倒	궁성이 모두 무너져 버렸네.
六帝餘古丘	육조 제왕의 무덤만 남았는데
樵蘇泣遺老	나무하고 풀 베는 모습에 늙은이 눈물 흘리네.

일반적으로 이 시는 이백이 처음으로 金陵(현재의 南京市)을 유람하던 開元 14년(726)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처음 2구를 제외하고 전편에 걸쳐 화려한 옛 모습은 사라지고 퇴락해 버려 쓸쓸한 현재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사의 무상함을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李太白詩醇》에서 “슬프고 강개한 소리가 있다.”<sup>5)</sup>라고 평 한 것은 그러한 今昔之感에 대한 쓸쓸한 정서를 간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다만 옛 이름만이 청사에 전해 오는구나. 지금 세상이 이와 다를 바 없으니, 슬프구나! 참으로 애달프구나!(青史舊名傳, 今日併如此, 哀哉信可憐.)”라고 노래한 <過四皓墓>, “왕궁은 옛 무덤에 묻혔네. 부질없이 후호 위로 뜬 달만 남아, 물결 위에서 모래톱과 마주하고 있네.(離宮沒古丘, 空餘後湖月, 波上對瀛洲.)”라고 읊은 <金陵其二> 등은 모두 그러한 인간사의 무상함 내지는 古今盛衰의 감회를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 속이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흠모하는 인물을 회고하며 그리움의 정을 드러내거나 지금은 볼 수 없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역시 이백의 <회고>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岷山을 지나며 山簡(253~312)을 그리워한 <岷山懷古>, 下邳의 圯橋를 지나며 漢初의 협객 張子房(기원전 약 250~기원전 약186)을 그리워하는 <經下邳圯橋懷張子房>, 가을 밤 板橋를 지나며 謝朓(464~499)를 그리워한 <秋夜板橋浦泛月獨酌懷謝朓>, 사조의 유적에서 사조를 그리워하며 지은 <謝公亭>, <謝公宅>, 牛渚磯에서 謝尚(308~357) 장군을 그리워하며 지은 <夜泊牛渚懷古>, 巫山 아래서 宋玉(기원전 약290~기원전 약222)을 그리워하는 <宿巫山下>, 武昌에서 宋若思를 모시고 놀았던 옛일을 회고하며 지은 <陪宋中丞武昌夜飲懷古> 등의 9수가 이에 속한다. 이 가운데서 <가을밤 판교포에서 달밤에 배 띄우고 홀로 술 마

5) 《李太白詩醇》卷四：“有悲慨之音。”(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218쪽)

시다 사조를 그리워하며(秋夜板橋浦泛月獨酌懷謝朓) > 를 살펴보자.

天上何所有	하늘에는 무엇이 있는가?
迢迢白玉繩	저 멀리 하얀 옥승성이
斜低建章闕	긴장궁에 비스듬히 낮게 드리워
耿耿對金陵	반짝거리며 금릉의 산을 마주하고 있네.
漢水舊如練	한수는 옛날처럼 누인 명주 같고
霜江夜清澄	서리 내린 강은 밤중에 맑고 깨끗하네.
長川瀉落月	큰 강은 지는 달 쪽으로 세차게 흘러가고
洲渚曉寒凝	모래섬엔 새벽의 한기가 서려 있네.
獨酌板橋浦	판교포에서 홀로 술 마시며
古人誰可徵	옛사람 중 누구를 부를 만 한가?
玄暉難再得	사조를 다시 만나기 어려워
灑酒氣填膺	강에 술 뿌리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시는 금릉에 있는 板橋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南朝의 시인인 謝朓를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사조는 宣城太守로 재임할 때에 板橋를 배경으로 한 山水詩 <之宣城出新林浦向板橋>를 지은 바 있다. 평소 흠모해 마지않던 사조의 유적지에서 홀로 배 띄우고 외로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 사조에 대한 회고의 정이 자연스럽게 시로 연결 되었을 것이다. 특히 시의 마지막 네 구절에서는 홀로 술을 마시며 사조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조에 대한 무한한 추모와 흠모의 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역사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관련된 일화를 서술하는 가운데 묘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것은 이백 <회고>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이 된다. 春秋 말엽의 西施의 일화를 서술한 <西施>, 東晉의 王羲之(303~361)를 묘사한 <王右軍>, 漢代 전설 속의 神仙을 묘사한 <上元夫人>, 秦末 商山에 은거한 四皓를 묘사한 <商山四皓>, 西晉 말년의 역사 속의 周顛(269~322), 王導(276~339)의 일화를 묘사한 <金陵新亭>, 漢武帝 때의 蘇武(기원전 140~기원전 60) 장수를 묘사한 <蘇武>, 東漢末의 문인 禰衡(173~198)을 서술한 <望鸚鵡洲悲禰衡>, 殷나라 시기의 傅說, 伊尹(기원

전 약1630~기원전 약1550) 및 孔子(기원전 551~기원전 479)의 일화를 묘사한 <紀南陵題五松山>, 전설 속의 신선 丁令威의 일화를 묘사한 <姑孰十詠·靈墟山> 등의 9수가 이에 속한다. 이 가운데 <왕희지(王右軍)>를 살펴 보자.

右軍本清真	왕희지는 본래 맑고 참되어
瀟灑在風塵	세속에 살면서도 얽매임 없었네.
山陰遇羽客	산음에서 만난 한 도사가
要此好鵝賓	거위를 좋아하는 이 손에게 글씨를 청하니
掃素寫道經	흰 비단에 휘갈겨 쓴 《도경》은
筆精妙入神	필법이 뛰어나 신이 쓴 듯 오묘했네.
書罷籠鵝去	다 쓰고 나서 조롱에 거위 넣어 떠날 때
何曾別主人	주인에게 어찌 작별 인사나 고했으랴?

이 시는 書聖으로 칭송받는 東晉의 王羲之를 묘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은 회고시이다. 첫 두 구절에서 왕희지의 천진하고 얽매임 없는 성격을 제시한 후, 나머지 여섯 구에서 《晉書·王羲之傳》의 “왕희지는 혼연히 쓰고 나서는 거위를 새장에 담아가면서 매우 즐거워하였다.”<sup>6)</sup>라는 일화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왕희지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조명했다. 물론 이렇듯 예측에 얽매이지 않는 천진난만하고 성격을 흠모하는 듯한 표현 속에는, 이백 자신도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嚴羽가 이 시에 대해 “왕희지를 傳神한 것이지만 또한 스스로를 말한 것이기도 하다.”<sup>7)</sup>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간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역사 속 인물묘사’의 내용 속에는 표면적으로는 역사 속의 인물과 일화를 단순히 서술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감회나 뜻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過四皓墓>에서는 은일을 하다가 나아가 큰 공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 듯하며, <蘇武>에서는 漢나라의 충신

6) 《晉書·王羲之傳》卷八十：“羲之欣然寫畢，籠鵝而歸，甚以爲樂”

7) 《嚴評本》：“爲右軍傳神，亦以自道(詹鐸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152쪽)

소무의 묘사를 통해 이백의 우국충정을 우회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보이며, <望鸚鵡洲悲禰衡>에서는 東漢 말기에 재주는 지녔으나 무고한 죽음을 당한 禰衡의 묘사를 통해 이백의 懷才不遇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한편 위 시에 비해 이백의 <회고>편에 보이는 또 다른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역사를 통한 言志'의 내용에는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매우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自廣平乘醉走馬六十里至邯鄲登城樓覽古書懷>, <過彭蠡湖>, <入彭蠡經松門觀石鏡緬懷謝康樂題詩書遊覽之志> 등의 3수가 이에 속한다. 이 가운데 <광평에서 취흥이 일어 말 타고 60리 길을 달려 한단에 이르러 성루에 올라 옛 자취를 둘러보고 감회를 적다(自廣平乘醉走馬六十里至邯鄲登城樓覽古書懷)>를 예로 보자.

醉騎白花駱	취한 채 하얀 가리온 타고
西走邯鄲城	서쪽으로 한단성에 달려갔네.
揚鞭動柳色	채찍 휘두르며 달리니 버들가지 움직이고
寫韉春風生	말고삐 놓아 달리니 춘풍이 이네.
入郭登高樓	성곽에 들어가 높은 누각에 오르니
山川與雲平	산천은 구름과 함께 평평하네.
深宮翳綠草	깊은 궁궐터 푸른 풀에 덮여 있으니
萬事傷人情	세상만사 사람의 마음 애달프게 하네.
...	...
...	...
趙俗愛長劔	조 땅의 풍속은 장검을 좋아하니
文儒少逢迎	글 읽는 선비는 만나기 어렵네.
閑從博陵遊	한가로이 처사들과 어울리다
帳飲雪朝醒	천막 치고 이별주 마시니 눈 오는 아침에도 취해 있네.
歌酣易水動	목청껏 노래하니 역수가 출렁이고
鼓震叢臺傾	북소리 진동하니 총대가 기울어지네.
日落把燭歸	해 저물어 촛대 잡고 숙소로 돌아가
凌晨向燕京	날 밝으면 연경으로 떠나리.
方陳五餌策	장차 회유책을 바쳐
一使胡塵清	일거에 오랑캐 먼지 맑게 걷으리라.

이 시는 일반적으로 天寶11年(752) 이백의 나이 52세 때 幽州로 북상을 하던 도중 전국시대 趙나라의 수도였던 邯鄲을 유람하고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40句로 이루어진 장편 五言古詩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는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인용한 것이다. 첫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는 廣平郡에서 한단까지 오기까지의 풍경을 조망한 뒤, 한단에서 활약하던 현인과 호걸들의 업적과 기개를 회고하고, 이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져 결국은 잊히고 마는 운명임을 탄식했다. 이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상무정신이 드높은 趙땅에서의 교유를 통해 장차 공을 이루고자 하는 시인의 포부를 한껏 드러내었다. 특히 마지막 두 구절에서 “장차 회유책을 바쳐, 일거에 오랑캐 먼지 맑게 걷으리라.”라 하며 시인의 열망과 뜻을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過彭蠡湖>, <入彭蠡經松門觀石鏡緬懷謝康樂題詩書遊覽之志><sup>8)</sup>에서는 모두 謝靈運(385~433)이 노닐던 瑯琊호와 嵩山을 유람 한 뒤, “나는 장차 옷을 털고 떠날 것이니, 시끄러운 속세 벗어나 우화등선하리라. (吾將振衣去, 羽化出羈煩. <過彭蠡湖>)”라고 하거나 “나는 신선술을 배워 떠날 것이니, 물속의 신선 금고와 담소하고 싶네. (吾將學仙去, 冀與琴高言. <入彭蠡經松門觀石鏡緬懷謝康樂題詩書遊覽之志>)”라 하는 등 이른바 ‘遊仙’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백의 <회고>편에는 풍경묘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4수가 더 있고, 기타 내용이 2수 더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주로 풍경묘사에 초점을 둔 4수는 모두 <姑熟十詠> 가운데 <姑孰溪>, <丹陽湖>, <牛渚磯>, <天門山>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4수의 내용은 주로 눈앞에 보이는 명승지의 풍경을 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때로는 잠시 지금의 까닭 모를 근심을 내비치거나(<牛渚磯>) 혹은 이별의 아쉬움을 잠시 드러내고 있을 뿐이어서(<天門山>) 회고시라기보다는 여느 산수경물시에 가깝다. 이

8) <過彭蠡湖>와 <入彭蠡經松門觀石鏡緬懷謝康樂題詩書遊覽之志>는 그 주제, 내용 그리고 표현 등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가 두 갈래로 전수된 같은 시로 보며, 몇 구절에서 상이점이 발견될 뿐이나 <入彭蠡經松門觀石鏡緬懷謝康樂題詩書遊覽之志>가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보통은 이 시를 원시 내지 正本으로 삼는다.

는 아마도 <姑熟十詠>이 하나의 '組詩'로 총10수 가운데 5수가 회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전체 시를 <회고>편에 편입하게 된 것과 관련이 깊은 듯 하다. 사실 기타의 내용 2수 가운데 慈姥山の 대나무를 노래한 <姑熟十詠·慈姥竹>이 회고시가 아닌 영물시에 가까운 이유 역시 이와 같다.

기타의 내용 가운데 나머지 1수인 <여강 객점의 주인 아낙(廬江主人婦)>은 그 作法이 회고시 가운데 다소 특이하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孔雀東飛何處棲 공작새가 동으로 날아가 어디에 깃들었나?  
廬江小吏仲卿妻 여강의 아전 초중경의 처와 같구나.  
爲客裁縫石自見 나그네 위해 옷 기워도 오해 사는 일 없고  
城烏獨宿夜空啼 성벽 위 까마귀처럼 홀로 자며 부질없이 우는구나.

일반적으로 이 시는 天寶7년(748)에 이백이廬江에 갔을 때 객점의 주인아낙을 위해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여인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처지로, 시에서는 漢代 樂府詩 <古詩爲焦仲卿妻作>에서의 焦仲卿의<sup>9)</sup> 이미지를 가져와 형상화 했다. 明代 朱諫은 “이 시는 여강 주인의 아낙, 곧 고시 초중경의 처를 말하고 있다”<sup>10)</sup>면서 그녀를 찬미했지만,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이백이 여강에 갔을 때 객점의 주인아낙을 위해 지은 ‘遊戲之筆’로 여긴다. 예를 들어 《李白集校注》에서 “이것은 초중경의 아내를 읊은 것이 아니고, 바로 여강의 객점에서 머물 때 지은 유희지필이다. 첩영의 말이 맞다.”<sup>11)</sup>라고 한 바와 같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는 현재의 사물로 옛것을 회고하는 것이 아닌 옛것을

9) <古詩爲焦仲卿妻作>의 序文에 “漢代 말기 建安 연간에 廬江郡 태수 관아에 근무하는 아전 초중경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劉氏가 시어머니로부터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再嫁하지 않기로 맹서하였다. 친정에서 재가를 종용하자 스스로 강물에 빠져 죽었다. 초중경이 이 소식을 듣고 또한 정원의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을 슬퍼하여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漢末建安中, 廬江府小吏焦仲卿妻劉氏, 爲仲卿母所遣, 自誓不嫁. 其家逼之, 乃沒水而死. 仲卿聞之, 亦自縊於庭樹. 時人傷之, 爲詩云爾.)”라는 내용이 보임.(邊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95, 283쪽)

10) 朱諫, 《李詩辨疑》: “此詩謂廬江主人之婦, 卽古詩焦仲卿之妻也.”(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205쪽)

11) 瞿蛻園, 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此非詠焦仲卿妻, 乃在廬江客次遊戲之筆. 詹說是.”(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1307쪽)

빌려 현재의 것을 노래하는 경우가 된다. 회고시의 내용 가운데 다소 특이한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 3. <회고>편의 구조 특색

회고시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되므로 시간과의 관련이 두드러진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현재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유한과 무한, 순간과 영원, 개체의 초월과 영속 등에 대한 주제도 종종 제기된다. 이백은 <將進酒>에서 “아침에 검은 실 같은 머리카락이 저녁에는 눈발이 되었구나(朝如青絲暮成雪)”<sup>12)</sup>와 같이 인생의 길이를 조석의 길이로 축소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시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회고시는 주로 과거의 역사 인물, 유적, 왕조의 성쇠 등을 둘러싸고 대화하면서 시공의 축이 자유롭게 변화하고 다양한 시간 의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간 의식에서 오는 구조적 특색이야말로 회고시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이나 유적, 왕조 등의 역사 대상 등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하나의 고정된 시각이나 정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인물이나 시대에 대해서는 희망과 비전을 투사하기도 하고,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는 일종의 悲壯美를 갖기도 한다. 또 이러한 정감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매우 개인적이며 개성적인 것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백의 <회고>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구조적 특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납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頌揚의 구조. 둘째, 역사의 滄桑感에서 오는 消滅의 審美 구조. 셋째, 시간차의 제거에서 오는 不在의 구조 특색이 바로 그것

12) 李白, <將進酒>: “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 朝如青絲暮成雪.”(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58쪽)

이다.

### 3.1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頌揚의 구조

‘頌揚’의 서술 전개는 중국 시가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詩教에도 선왕의 공업이나 업적에 대해 頌美하는 전통이 있다. 그것은 儒家에서 말하는 군주의 教化와 사회적 禮教에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道家에서 말하는 생명과 尙上의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측면을 구성하였다. 이백은 사회적 자아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추구하였다. 이백은 종종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속의 魯仲連(기원전 약 305~345), 管仲(기원전 723~645), 樂毅(기원전 324~262), 張良(기원전 약250~약186), 諸葛亮(181~234), 謝安(320~385) 등의 인물을 ‘송양’하는 가운데 그 형상에 자신을 투영하여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이백 <회고>편에서의 ‘송양’은 주로 이른바 ‘功成身退’의 정신과 ‘魏晉風度’의 정신을 함께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백은 어느 누구보다도 전국시대 노중연의 ‘공성신퇴’ 정신을 가장 먼저 뚜렷이 강조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진 시대에 풍미한 飄逸하고 瀟灑한 ‘위진풍도’를 수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공성신퇴’는 공을 이루고도 그 보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초연히 초야로 돌아가 은거하겠다는 뜻이며, ‘위진풍도’는 소탈하고 표일한 생활 태도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시대를 거쳐 이백의 정신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었고, 역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인물상에 투영하고 있다. 물론 ‘공성신퇴’를 주장하거나 실행한 사람도 있고 당대에는 ‘위진풍도’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지만, 이백처럼 이 둘을 하나로 결합하여 완미한 인간상으로 만들어 제시한 시인은 없었다.

물론 이렇듯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떠한 인물을 ‘송양’하는 구조는 이백이 <회고>편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서술 구조이다. 예를 들어, 한대

초기 漢高祖(기원전 256~195)의 후계 문제에 공을 세운 상산 사호를 노래한 <상산의 네 백발 은자(商山四皓)>를 살펴보자.

白髮四老人	백발의 네 노인
昂藏南山側	상산 기슭에서 초연하게 은거했네.
偃臥松雪間	눈 쌓인 소나무 사이에 편안히 누웠으니
冥翳不可識	깊은 곳이라 세인들이 알 수 없었네.
雲窗拂青靄	구름 낀 창가엔 푸른 기운이 스치고
石壁橫翠色	돌담엔 비취 색깔 비껴 있네.
龍虎方戰爭	용과 호랑이가 싸우기에
于焉自休息	이곳에 은거했네.
秦人失金鏡	진나라가 밝은 도를 잃어
漢祖升紫極	한고조가 제왕의 자리에 올랐네.
陰虹濁太陽	흐린 무지개 태양을 흐리니
前星遂淪匿	태자 별이 드디어 사라지게 될 처지.
一行佐明兩	일행이 태자를 도우니
歎起生羽翼	그에겐 문득 날개가 생겼다네.
功成身不居	공을 이루고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으니
舒卷在胸臆	나서고 물러남이 마음속에 분명했네.
宵冥合元化	심원한 뜻이 천지조화와 합치하니
茫昧信難測	그 아득한 경지 실로 헤아리기 어려웠네.
飛聲塞天衢	높은 명성 도성에 자자하니
萬古仰遺跡	만고에 남긴 자취 우러러보네.

상산 사호는 잘 알려진 역사 인물로 秦나라 말기부터 漢代 초기에 걸쳐 상산에 은거하던 네 명의 노인인 東園公, 甬里先生, 綺里季, 夏黃公을 가리킨다. 그들은 한 고조의 초빙에도 응하지 않다가도 막상 조정에 후계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초연히 내려와 呂后(기원전 188~180 전후에 활동)의 장자 劉盈(기원전 195년~188에 재위)의 고문이 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조정의 분쟁을 해결하고 유영이 惠帝가 되어 계위하였으니, 그 영예를 누릴 만했으나 홀연히 떠났다. 이러한 ‘공성신퇴’와 표일한 행동은 ‘위진풍도’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위진풍도’ 역시 禮敎와 욕망이 아니라 진술, 소탈, 표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 속에서 “공을 이루고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으니, 나서고 물러남이 마음속에 분명했네.(功成身不居, 舒卷在胸臆)”라고 읊은 부분은 이백의 그러한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위진풍도’의 정신이 특히 뚜렷한 시로는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본 <왕희지(王右軍)>를 들 수 있다. 도사는 글씨를 탐하고 왕희지는 거위를 탐하나 그 탐심이 세속적 욕망이라기보다는 ‘習癖’이자 기호이어서 서로 허물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선명한 표현과 형식적 예의를 중시하지 않는 모습에서 진솔함이 아낌없이 드러난다. 마지막 구 역시 왕희지의 아들 王徽之가 남의 대숲을 둘러보고 인사도 없이 떠난 ‘왕희지의 대밭 구경(王子猷看竹)’<sup>13)</sup>을 끌어와 왕희지의 성품을 형용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진솔한 풍모는 역대로 賞讚해 마지않았지만 이백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였고 극력 묘사하였으며, 앞에서 말한 ‘공성신퇴’와 결합되기도 한다.

<회고>편 가운데 ‘공성신퇴’의 정신이 현저하게 드러난 시로는 “영원토록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千秋竟不還)” 西施를 묘사한 <西施>, “집안을 돌보지 않고 가산을 털어냈던(破產不爲家)” 張良을 그린 <經下邳圯橋懷張子房>, 東晉의 왕조를 세우는데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王導를 추앙한 <金陵新亭>, 蔣相如와 廉頗, 公孫杵臼와 程嬰, 平原君과 毛遂를 기린 <自廣平乘醉走馬六十里至邯鄲登城樓覽古書懷> 등이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의롭고 뜻이 높다는 점에서 ‘공성신퇴’ 또는 ‘위진풍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러한 정신과 상통한다. 이들에 대해 이백은 “만고에 남긴 자취를 우리러보고(萬古仰遺跡, <商山四皓>), “천년토록 그의 뛰어난 이름 앙모한다.(千載仰雄名, <金陵新亭>)”

인물의 소재하고 표일한 풍도와 ‘공성신퇴’의 정신적인 아름다움은 다름 아닌 이백이 지향하는 인간상이자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을 것이다. 아름답고 뛰어난 인물의 사라짐은 그 인물을 더욱 귀하고 높이 우리르게 만든다. <西施>도 그러하고, <上元夫人>도 그러하며, <蘇武>도 그러하다. 인간과 신선을 가리지 않는다. 사실 이백의 다른 시의 특징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풍격인 ‘飄

13) 劉義慶 編, 余嘉錫 箋疏, 《世說新語箋疏》<簡傲>(北京: 中華書局, 2007, 775-776쪽)

逸도 이러한 정신적인 지향이나 의취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결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 인물을 ‘숭양’하는 방편으로 ‘공성신퇴’와 ‘위진풍도’의 정신은 적극 운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서술 구조는 이백의 <회고>편에서 하나의 주요 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 3.2 역사의 滄桑感에서 오는 消滅의 구조

역사 인물, 유적, 왕조 등의 역사 대상은 이미 과거에 사라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며, 왕조의 운명도 영원하지 않다. 역사의 모든 것은 영속적이지 않음을 직각적으로 깨닫게 해준다. 마치 흘러가버린 시냇물과 같다.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호매한 영혼과 영웅적인 업적은 예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고대의 철인들은 수많은 사색을 하였다. 孔子가 “지나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구나.”<sup>14)</sup>라고 언급한 것은 시간의 소멸과 더불어 인간사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대한 직각적인 탄식이다. 이백은 다른 詩作에서 이러한 탄식을 수없이 한 바 있다.

逝川與流光	흘러가는 강과 쉼 없는 빛
飄忽不相待	순식간에 떠나 기다려주질 않아라.
	<古風 五十九首·其10首>

長繩難繫日	밭줄로 해를 묶어두기 어려워
自古共悲辛	예부터 모든 이가 슬퍼하였네.
	<擬古十二首·其3首>

黃河之水天上來 황하의 물줄기가 천상에서 내려와

14) 楊伯峻 譯注, 《論語譯注》 <子罕>: “逝者如斯夫, 不舍晝夜.”(北京: 中華書局, 1980, 92쪽)

奔流到海不復回 한번 내달려 바다에 이르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將進酒>

이러한 아쉬움과 애석함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나간 왕조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한 일종의 ‘滄桑感’이 유형적으로 반복되었다. ‘창상감’은 역사 대상이 옛 모습을 잃고 달라진 데서 오는 깊은 변화의 감각이다. 이른바 ‘桑田碧海’란 말과 같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하고, 바다가 다시 뽕나무밭으로 변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에서 오는 감각이다. 특히 상전벽해의 변화가 역사의 흥망내지는 ‘소멸’의 극적 대비를 자각시키게 한다면 일종의 悲壯한 美感의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창상감’에서 오는 消滅의 悲壯 심미는 이백의 <회고>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백이 蘇州에 갔을 때 노래한 <고소대의 옛 유적을 둘러보며(蘇臺覽古)>를 살펴보자.

舊苑荒臺楊柳新 옛 궁원 스러진 누대에 버들 빛 새롭고  
 菱歌淸唱不勝春 마름 따며 부르는 맑은 노래 춘흥에 겹네.  
 只今唯有西江月 지금은 서강에 뜬 저 달만이  
 曾照吳王宮裏人 그 옛날 오나라 왕궁의 여인을 비추었으리.

앞 3구는 모두 현재의 일을 말하다가 마지막에서 과거의 오나라 궁녀를 이끌어낸다. ‘궁중의 여인들(宮裏人)’은 말할 것도 없이 西施 등의 궁녀들을 말하는 것으로, 春宵宮과 館娃宮을 지어 즐긴 夫差(기원전 약528~473)를 은근하게 비판하고 오나라의 멸망을 환기시키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제1구의 ‘옛 정원의 황량한 누대(舊苑荒臺)’와 제2구의 ‘마름 캐며 부르는 노래(菱歌淸唱)’도 모두 지금의 모습이지만, 이미 고대의 것과는 다르다. 지금 고대의 것과 똑 같은 것이라곤 오직 ‘서강의 달(西江月)’로, 이것은 과거에는 궁녀들을 비추었고 지금은 ‘마름 캐며 노래 부르는’ 여인들을 비춘다. 이렇게 보면, 고대의 모든 소멸은 현재에 와 있게 된다. 그 차이는 ‘서강의 달’을 기준으로 볼 때 더욱 커

진다. 고대의 역사와 누대와 사람은 소멸되어 가는 중이다.

역사의 유적지에서 時空은 크게 압축되고 왜곡된다. 공간은 그대로이나 정원과 누대가 퇴락하였기에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달만이 변함없는 '物是人非(풍물은 여전한데, 인간사는 이미 변모하다)'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일종의 비장한 심미를 느낀다. 이러한 변모는 책에서 읽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의 유적지에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옛 정원의 황량한 누대(舊苑荒臺)'는 옛 모습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미 닳아졌다는 것에서 사람은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黃叔燦의 《唐詩箋注》에서 이 시에 대해 "옛 일을 슬퍼하는 정이 깊고, 그 시어가 지극히 처량하고 완곡하다."<sup>15)</sup>라고 평한 바 있다.

이어서 아래의 <달밤에 금릉에서 옛일을 생각하다(月夜金陵懷古)> 역시 반복되는 왕조의 흥망에서 오는 '창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蒼蒼金陵月	몽롱한 금릉의 달
空懸帝王州	제왕의 도읍 위에 허전하게 걸려 있네.
天文列宿在	하늘에 늘어선 별자리는 그대로인데
霸業大江流	제왕의 패업은 장강 따라 흘러갔네.
滌水絕馳道	맑은 강물은 천자가 말달리던 길을 끊었고
青松摧古丘	푸른 소나무는 왕릉을 허물어 버렸네.
臺傾鵝鵲觀	대는 허물어져 지작관만 남았고
宮沒鳳凰樓	궁궐 속 봉황루는 사라져 버렸네.
別殿悲清暑	슬프도다! 보이지 않는 청서 별궁
芳園罷樂遊	향기로온 낙유원도 황폐해졌네.
一聞歌玉樹	<옥수후정화> 노랫소리 한 번 들으니
蕭瑟後庭秋	뒤뜰의 가을은 스산도 하네.

金陵은 六朝의 도읍지로 사백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섯 왕조가 번갈아가며 흥망을 거듭했다는 데서 어느 곳보다 역사에 대한 '창상감'을 일으키기 쉬운

15) 黃叔燦 《唐詩箋注》: "弔古情深, 語極凄婉"(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158 쪽)

곳이다. 예전에 번성하고 화려했던 사물과 사람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거나 소멸되었다. 시 속의 <玉樹後庭花><sup>16)</sup>의 전고는 그러한 소멸을 집약적인 형상화한 것이다. 역사는 관념적으로 개괄하지만 문학은 형상화시킨다. 이백은 이들을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려 끊어진 치도(馳道), 허물어진 무덤, 기운 누대, 사라진 궁궐을 하나씩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적인 힘과 미감은 이러한 마멸되고 소멸된 모습에서 일종의 비장의 심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백은 금릉에 대해 많은 시를 남기면서 곧잘 이러한 ‘상상감’에서 오는 소멸의 심미 구조를 보여주는 작품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회고>편 가운데 <金陵三首>의 제3수에서도 “옛 궁전의 오나라 화초, 깊은 궁궐의 진나라 옷 입은 여인들, 모두 세상사와 함께 사라졌고, 푸른 물결 따라 동으로 흘러갔네.(古殿吳花草, 深宮晉綺羅. 併隨人事滅, 東逝與滄波.)”라고 노래한 바와 같다.

### 3.3 시간차의 제거에서 오는不在의 구조

역사 대상을 사회적 자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또는 개성적(정신적) 층위에서 만난다면, 역사 대상은 친밀한 친구가 되거나 위안이 될 것이다. 인물들은 역사의 높은 전당에 올라가 있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일찍이 孟浩然(689~740)은 <夜歸鹿門山歌>에서 방덕공(龐德公)을 찾아가며 “바위 문 솔숲 길은 오래도록 적막한데, 오로지 은자만이 저 홀로 오가는 듯해라(巖扉松徑長寂寥, 惟有幽人自來去)”<sup>17)</sup>

16) 陳 後主가 지었다는 노래 이름. 《隋書·五行志》에 “陳 禎明 초에 後主가 새로운 노래를 지었는데, 가사에 애원의 감정이 매우 많았다. 후궁의 미인들에게 익히게 하여 그것을 부르게 했다. 그 가사에서 이르기를, ‘옥 같은 나무 뒤뜰에 핀 꽃, 꽃은 피었으나 다시 오래 가지 않네’라 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로써 參 參을 노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징조가 생겼다.(陳)禎明初, 後主作新歌, 詞甚哀怨, 令後宮美人習而歌之, 其辭曰, ‘玉樹後庭花, 花開不復久.’ 時人以歌讖, 此其不久兆也)”라는 전고가 있다.

17) 彭定求 等編, 《全唐詩》卷159(北京: 中華書局, 1992, 1630쪽)

라고 읊은 바 있다. 이러한 시는 고인에 대한 흥미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정취는 더욱 친밀하고 절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모습이므로 시인의 내면을 보다 더 잘 드러낸다.

이백의 시에서 이러한 요소는 매우 강하다. 고인의 연고지나 유적지를 방문하기라도 하면, 시인은 금방이라도 고인을 만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고인을 찾을수록 만날 수 없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시름은 깊어만 간다. 고인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것은 시인의 마음을 알아주는知己일 뿐만 아니라 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고인이 있는 과거와 시인이 있는 지금은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것은 고인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 왔을 때 가장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연유로 이백의 <회고>편에서도 不在의 구조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널리 회자되는 이백의 <밤에 우저산 아래 배를 대고 회고하다(夜泊牛渚懷古)>를 살펴보자.

牛渚西江夜	우저산 아래 서강의 밤
青天無片雲	밤하늘엔 조각구름 한 점 없네.
登舟望秋月	배에 올라 가을 달 바라보다
空憶謝將軍	부질없이 사상(謝尚) 장군 생각나네.
余亦能高詠	나 또한 소리 높이 읊조릴 줄 아나
斯人不可聞	이 사람처럼 들어 줄 이가 없구나.
明朝挂帆去	내일 아침 돛 달고 떠날 때
楓葉落紛紛	단풍잎만 어지러이 흩날리겠지.

牛渚는 지금의 江蘇省 馬鞍山市 當塗縣에 소재한 양자강가에 돌출한 작은 산이다. 이곳은 일찍이 동진 때 謝尚(308~357)이 鎮西將軍이 되어 달밤에 배를 타고 지나가던 곳이다. 그때 누군가 배 위에서 시를 읊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袁宏(328~376)이었고,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느라 새벽이 밝는 것조차 잊었다. 사상은 곧 원평을 자신의 參軍으로 채용하였다.

이백 역시 우저에 이르렀을 때 사상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구름 한

조각 없이 맑은 하늘에 달이 뜬 가을 밤, 그 사람은 마치 강가 어디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 속에서 “이 사람처럼 들어 줄 이가 없구나.(斯人不可聞)”라고 한탄하고 있다.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부재의 미감이 한없는 아쉬움을 일으킨다.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선 항상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사실 언제나 만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백은 비로소 자신을 알아주는 또 한 사람, 분신이자知己를 가진 것이다. 그것은 커다란 위안이 되며 현실에서 얻지 못한 고충을 보상해준다.

이백이 역사 인물 가운데 정신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 지기로는 謝朓가 있다. 當塗縣, 宣城, 金陵은 역시 사조와 연고가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일곱 번이나 그곳에 갔던 이백으로서는 사조와 관련된 시를 많이 지었다. <회고>편 가운데 <사공정(謝公亭)> 역시 그 가운데 한 편이다.

謝公離別處	사공정, 이별했던 곳
風景每生愁	그 풍경 매양 시름 돋우네.
客散青天月	나그네 떠난 뒤 푸른 하늘에 달은 휘영청 밝고
山空碧水流	산은 텅 비어 옥빛 물줄기만 흐르네.
池花春映日	연못가 꽃이 봄 햇살에 빛나고
窓竹夜鳴秋	창가의 대나무 가을밤에 슬피 우네.
今古一相接	지금과 옛날이 이 순간 하나가 되니
長歌懷舊遊	길게 노래하며 옛사람의 노닐을 그리워하네.

宣城의 사공정은 謝公樓, 謝朓樓, 北樓 등으로도 불린다. 사조가 선성 태수로 지내면서 范雲(451~503)과 놀던 곳이다. 이백은 이곳에 들를 때마다 그들이 마치 가까이 있는 듯 느껴진다.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누각에서 읊던 노래는 마치 자신이 지은 것과 같이 공감한다. 그들이 지내던 시대는 사라지고 마치 어제 이곳에 왔던 것처럼 느껴진다. 고대와 현재의 시간차는 소멸된다.

때문에 이백은 저도 모르게 “지금과 옛날이 이 순간 하나가 되니(今古一相接)”라고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다. 이는 <自廣平乘醉走馬六十里, 至邯鄲, 登

城樓, 覽古書懷>에서 “가마득한 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함께 한다(太古共今時)”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과 과거는 하나로 이어지며, 태고와 지금은 함께 한다. 시간을 나누는 격막은 인위적인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상이나 사조가 있는 시대에 이백이 가거나, 아니며 이백의 시대에 사상이나 사조가 소환되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서로가 것처럼 친밀할지는 모를 일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백의 개인적인 상상 속에서, 개인적인 정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대상은 나를 선택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虛化되어 자유롭게 변한다. 다른 역사 대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자아의 층위에서 대상은 수동적으로 변한다. 오직 시인만이 그들을 만나는 자유로운 정신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秋夜板橋浦泛月獨酌懷謝朓>에서도 사조를 소환하고 있지만, <過彭蠡湖>에서의 사령운, <望鸚鵡洲懷禰衡>에서의 예형 등도 이백이 친구로 불러 志趣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다른 각도로 보면 비록 상대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가 나를 알아주리라 믿는 것은, 내가 상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과 대상은 의취와 지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인의 믿음은 순진하면서 순수하다. 시공의 공존 속에 인물은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하여 시인에게 무한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실 시인은 이미 깊은 정감적 위안을 받았으며 아무도 끊지 못하는 '사심 없는 놀이(無情遊)'<sup>18)</sup>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부재하기에 더욱 그리워하고, 존재하지 않기에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대상은 시인을 분발시키고 위로하는 정신적 안식처였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18) 李白, <月下獨酌>: “永結無情遊, 相期邈雲漢.”(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268쪽)

## 4. 맺음말

이백은 젊은 시절부터 漫遊를 하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역사의 유적지나 명승지를 둘러보았다. 역사의 현장이나 유적지에서 그 역사를 떠올리며 시를 짓게 되는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런 일이 될 것이다. 이백의 시집에 <회고>편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 창작의 배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백은 역사 속 인물 가운데 자신의 '志趣'를 공유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수시로 시를 통해 흠모의 정을 드러내었다. 이백의 <회고>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의 창작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먼저 일종의 흘러간 역사 속에서 유적은 남아 있으나 인물은 보이지 않는 일종의 '今昔之感'과 같은 감회를 풀어 낸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었다. 또한 이백이 흠모하는 역사 속의 인물과 관련된 유적지나 역사를 접하게 될 때, 그리움의 정서를 흠뻑 드러낸 회고시를 짓거나 혹은 그 대상과 관련된 역사나 일화를 단순 서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인물 묘사는 단순한 묘사가 아닌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감회나 뜻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회고시를 통해 시인의 정치적 포부나 개인의 지향을 확연히 드러낸 '言志'의 내용 역시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백의 <회고>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구조적 특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頌揚의 구조로, 주로 '功成身退' 혹은 '魏晉風度'의 풍모를 보여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를 통해 이백은 자신만의 정신적 신념과 뜻을 드러낼 수 있었다. 둘째는 역사의 滄桑感에서 오는 消滅의 審美 구조로, 화려했던 과거의 역사가 지금의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극명한 대비의 구조를 통해 일종의 상실의 미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셋째는 시간차의 제거에서 오는 不在의 구조 특색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역사의 인물을 결국은 만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일종의 '부재'의 심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사실 이백은 역사 속 '知音'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감적 위안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백이 추구했던 일종의 '無情遊'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과거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는 현재의 不遇 혹은 한계를 위안하는 좋은 매개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백의 <회고>편은 바로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 < 參考文獻 >

-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 蕭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 詹鏐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 瞿蛻園, 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詹福瑞·劉崇德·葛景春,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稻田大學出刊部, 1980.
- 丁放, 袁行霈, 《盛唐詩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 遼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95.
- 施蟄存, 《唐詩百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陳伯海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6.
- 陳貽焜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 葛景春, 《李白研究管窺》, 保定: 河北大學出版社, 2002.
- 張舒, <簡論李白懷古詩的懷古傷世之風>, 《現代語文(文學研究版)》, 2009年 12月.
- 雷恩海, <詠史詩淵源的探討暨詠史詩內涵之界定>, 《貴州社會科學》, 1996年, 第4期.
- 劉學鐸, <李商隱的詠史詩的主要特徵及其對古代詠史詩的發展>, 《文學遺產》, 1993年, 第1期.
- 이기면, <李白<懷古>詩 譯解(1)>, 《中國語文論叢》 제82권, 2017.

유혜영, <유적지에서의 감회 - 初唐懷古詩의 形成過程과 類型研究>, 《中國學報》 제54집, 2006.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tent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iBai's Poetry of 'Huaigu'

Choi, Woosuk

This paper studies the view of content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LiBai's Poetry of 'Huaigu', which has two methods of narrations. One method is looking back on the history related to historical relics when he visited them. The remainder is recalling history in his mind. The largest share of his Huaigu is describing the meaninglessness of life while historical relics remained as they were. There is also a considerable amount of Huaigu in which he missed historical figures or described those figures and related history. Even, in some poems, the poet expressed his political opinions or personal philosophy.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in Libai's poems that he revealed his feelings or meanings in current situations. Especially, he lamented the fact that a King or political leaders could not recognize his ability even though he felt that he was fully qualified in politics or administrative works. In addition, he expressed from time to time that his wish was to contribute greatly to his government's administration and then retire to the countryside. Also, there are cases in his poems that the world of Taoist hermit often fascinated him deeply. LiBai's Poetry of 'Huaigu' includes three aspect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First, he glorified historical figures back in time. In this case, he had a tendency to identify himself with the figures of his admiring. Second, he show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vanishing with historical meaninglessness. Finally, there

exis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on-being regardless of time.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was no distinc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Voidness, without the time dimension or with both present and past being together, strengthened his sense of feeling which might make him be a more sensitive poet. In short, Libai was an excellent poet even in his poetry of 'Huaigu' where he expressed his wishes and voidness with utilizing historical figures and relics. In this way, he focused on the beauty of perpetual lasting emotions and admiring.

Key words: LiBai, LiBai's Poetry, Huaigu, Tang's Poetry, Poetry of Huaigu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02.09	2019.02.14	2019.02.27	2019.03.05	2019.03.31

